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50-000032-1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ISSUE PAPER vol. 38

2022년 국가기록원 국외업무출장 관련 해외 기록관리 사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Contents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38
ISSUE PAPER

한-우즈벡 기록관리협력 국외출장 참가

이젬마 서기관 (gemma617@korea.kr/ 디지털혁신과)

Ⅰ. 출장개요
Ⅱ. 면담 및 시찰 등의 결과
Ⅲ. 기대효과

한-모로코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보존·복원 컨설팅

나미선 학예연구관 (yeomin05@korea.kr / 복원관리과)
조은혜 학예연구사 (choeunhye@korea.kr / 복원관리과)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2022 ICA 연례회의 참가 및 활동

이정연 학예연구사 (pale201@korea.kr / 기록협력과)

Ⅰ. 개요
Ⅱ. 참여활동
Ⅲ. 시사점 및 향후과제

Contents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38
ISSUE PAPER

-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 주최 - 제1회 기록관리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주제발표

조이현 학예연구관 (joyih@korea.kr/ 기록협력과)
신동혁 공업연구사 (hyeokk@korea.kr/ 복원관리과)

Ⅰ. 출장개요
Ⅱ.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및 기록보존소 견학
Ⅲ. 결론

기록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해외동향 및 향후 과제

이상화 전문임기제 라급 (goocoo133@korea.kr / 복원관리과)
이영락 공업연구사 (samstown@korea.kr / 복원관리과)
박성배 공업연구관 (canfafa05@korea.kr / 정책기획과)

Ⅰ. UNESCO 3rd Memory of the World Global Policy Forum
Ⅱ. 일본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화 및 보존 · 복원 현황
Ⅲ. 향후 과제

한-우즈벡 기록관리협력 국외출장 참가

이젬마 서기관(gemma617@korea.kr / 디지털혁신과)

목 차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2. 출장개요

Ⅱ. 면담 및 시찰 등의 결과
1. 주요내용
2. 상세내용

Ⅲ. 기대효과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신북방지역(우즈베키스탄) 디지털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하고 출장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요약함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2022년 2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후 '우즈벡'으로 명명)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고려인 강제 이주 85주년을 계기로 신북방지역 디지털정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고위급 출장이 진행되었다.

특히, 우즈벡 측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정부 분야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아젠다의 발굴과 실무 논의를 위해 국가기록원도 참여하였으며, 기록관리와 관련된 양국의 협력사업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차관님을 필두로 행정한류담당관실, 디지털정부국,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세청 전문가 등 총 11명이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록관리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2. 출장개요

1) 출장기간

2022.2.14.(월)~2.18.(금) 3박 5일

2) 출 장 자

디지털혁신과 이젬마 서기관

3) 주요 출장내용

차관님은 고려문화협회장과 면담, 우즈벡 국가기록청장과 면담을 수행했으며, 국가기록원에서는 우즈벡 측 기록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전자기록관리 세미나 및 질의 응답, 우즈벡 국가기록청 시설 견학과 실무업무 논의, 기타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4) 주요 출장일정 (기록관리 관련 일정)

날 짜	시 간		세부 내용
2.14.(월)	17:00~18:00	60′	• 차관님-고려문화협회 회장 면담 수행 * 한국문화예술의 집 시찰
2.15.(화)	16:00~16:30	30′	• 차관님-국가기록청장 면담 수행
	16:30~17:00	30′	• 차관님-국립중앙기록보존소 시찰 수행
2.16.(수)	09:30~11:00	90′	• 국립과학기술의료기록보존소 견학 및 질의응답
	11:00~12:30	90′	• 국립영상기록보존소 견학 및 질의응답
	14:00~17:00 (인하대 대강당)	180′	• 전자기록관리 세미나 발표 및 질의응답
	17:20~18:20	60′	• 우즈벡 국립역사박물관 관람

Ⅱ. 면담 및 시찰 등의 결과

1. 주요내용

우즈벡은 한국을 형제의 국가로 생각하며, 이번 차관님 방문을 포함, 우리 원의 방문과 세미나 개최, 식사(오만찬) 등에 있어 매우 큰 예우와 환대를 제공하였다.

'고려인의 정착과 우즈벡 경제발전 기여'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즈벡은 우리나라로부터 기록관리를 배우기 위해 지속적 · 적극적 협력을 원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기록관리에 필요한 각종 지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간 수교 30주년 및 이번 차관님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벡 양국도 아래와 같이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분야별 전문가의 지속적 교류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록관리 지원, 양국 관련 기록물의 상호 수집 및 활용 필요
-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現 시스템과 체계를 전수하되 그간의 시행착오와 장단점을 함께 전수하여 자발적 판단을 권장 필요

2. 상세내용

1) (차관님) 고려문화협회 방문 · 면담(2.14)

고려문화협회 전시물(고려인 집단농장, 고려인 노동영웅들의 인물사진 등 고려인들의 우즈벡 정착 관련 사진들 전시)을 관람하였고, 아래와 같이 상호 논의가 진행되었다.

- ▸ (한)올해는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으로 양국간 더 완숙된 관계 구축 필요
- ▸ (우)대통령의 우즈벡 방문 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제안을 수락. 또한 협회는 우즈벡 고려인 후손의 IT 교육을 위한 PC가 부족함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선조들의 기록을 잘 남기고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박물관 운영이 필요하며, 후손들 IT 교육을 위해 예술의 집에 IT 센터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박물관 건립과 PC에 대해서도(부내 교체 노후PC 제공 등) 적극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고려문화협회 방문(차관님)

2) (차관님) 우즈벡 국가기록청 방문 · 면담(2.15)

차관님은 올해는 양국수교 30주년으로 많은 일들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기록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는 대단히 뛰어난 안목을 가진 나라로서, 기록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는 개방되며, 비즈니스와 창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우즈벡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고려인 정착 관련 기록을 현재처럼 잘 보존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즈벡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벡 국가기록청의 발전을 위해 행안부, 기록원, KOICA가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력이 큰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대답하였다.

우즈벡측은 양국 관련 기록물의 공동연구, 공동행사 등을 통해 상호 관련된 기록물이 공개되고 서비스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16년 체결된 MOU에 양국의 공동연구, 공동출판 등 상호협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상호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원실 견학 과정에서는 한국 국가기록원 지원으로 우즈벡 측이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로 복원을 실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복원기술이 여러 나라에 전수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시관에서는 2017년~2019년 한국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우즈벡 직원대상 교육 사진 및 국가기록원의 홍보 브로셔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국가기록원의 다각적 ODA사업과 국제교육 활동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고에서는 한국기업 (주)대우의 우즈벡 진출 관련 공문서를 보면서, 한국의 민간기업이 우즈벡의 경제건설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였는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우즈벡 양국은 한국관련 기록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양국이 상호 공유하면서 기록문화를 함께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국가기록청 방문(차관님)

3) (국가기록원) 우즈벡 국가기록청 산하 기록보존소 2곳 시설 견학(2.16)

우즈벡측은 주로 KOICA 무상원조를 통해 기록관리 장비 등을 도입하였으며, 주로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 작업 및 파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도 하였다.

우즈벡 국가기록청은 산하에 3개의 국립보존소와 지역에 226개의 지역보존소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디지털화를 진행하지만 국가기록청 시스템에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상필름 보존에 있어서는 필름 재생, 필름 되감기 등도 한국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관리 방식과 다르지 않으나 장비의 종류나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담당인력이 소규모임을 알 수 있었다. 영상 엔코딩을 위한 기본 장비는 있으나, 텔레시네와 같은 고가 장비는 아니었고, 다양한 접근점으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작업으로 카드 목록을 철저히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서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낙후되었으나 가스식 소화기, 항온항습기, 안면인식 출입통제장치 등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우즈벡 기록관리의 수준은 한국 국가기록원의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에 해당될 수 있는 단계 정도로 판단되었으나, 특히 기관장의 기록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의지, 전문성 함양에 대한 요구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기록청 견학

4)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 세미나(2.16)

한국 국가기록원은 타슈켄트의 인하대 대강당(디지털 정부 협력세미나 장소와 동일)에서 전자기록관리 세미나의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우즈벡 측에서는 약 30~40여명의 중앙/지역 보존소 실무자들이 참석하였고, 온라인 Zoom으로도 동시에 중계되었다.

세미나는 '한국의 기록관리' 발표 2시간, 일반 기록관리 질문 1시간 포함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주요 내용으로 한국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기록전문가 배치기준 및 양성과정, 전자문서 생산과정(업무관리시스템), 디지털화 작업 절차 · 기준, 보존포맷, 전자서명 장기검증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세미나 종료 후 '우즈벡 기록청 방문 소감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현지 라디오 방송국과 간단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즈벡 기록청은 기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향후 정부의 예산지원과 선진국의 기술 전수가 이어진다면 빠른 시일내에 크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것, 한-우즈벡 양국은 전자기록관리 컨설팅과 교육, 한국관련 기록물의 공동수집,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전자기록관리 세미나

Ⅲ.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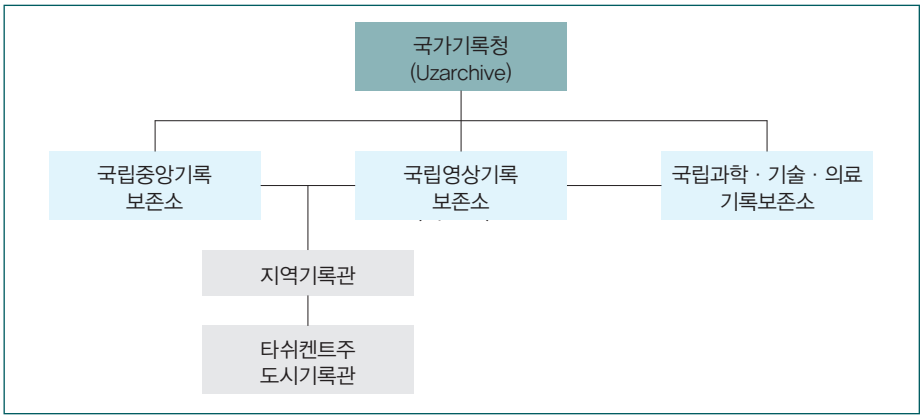
금번 우즈벡 방문 결과는 국가기록원 각 부서에 공유되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관련 기록물의 지속적 수집, 전자기록관리 분야의 컨설팅과 교육 등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의 기록관리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우즈벡 국가기록청(Uzarchive) 현황

▫ 개 요

○ **(근거법)** '04년제정→기존기록관리부서가 "Uzarchive"로 승격
'10년 비정부기관, 공사 · 공단 등의 기록물 관리법 제정

○ **(조직)** 내무부 소속으로 국립중앙기록보존소, 국립영상기록보존소, 국립과학 · 기술 · 의료기록보존소와 지역기록관(타쉬켄트주 도시기록관)으로 구성



○ **(규모)** 1청장(대통령 임명), 3개 국립기록보존소, 14개 지역기록관, 224개 도시기록관

○ **(직원수)** 2,138명

○ **(위치)** 10043, Chilanzar district, Chilanzar street, 2, Tashkent

○ **(소장 기록물)** 약 1633만 storage units ※ '21년 약 38% 디지털화 완료

▫ 연 혁

○ 1958년 11월 20일 국립중앙기록보존소 설립

○ 1962년 국립과학기술 · 의료기록보존소 설립 ※ 약 30만 권의 문서 소장

○ 1974년 국립영상기록보존소 설립 ※ 사진, 필름 문서 약 300만 점 소장

○ 2004년 기록관리 통합 기관으로 'Uzarchive' 발족

국립중앙기록보존소 국립영상기록보존소 국립과학 · 기술 · 의료기록 보존소

□ 한국 관련 소장 기록물 현황

국가기록청 산하 국립기록보존소	주요 소장 기록물
국립중앙기록 보존소	• 1937년 극동 러시아 고려인의 정치적 탄압,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전후 이주정책 계획 문서 • 우즈베키스탄 강제이주 정책 · 과정 · 정착, 고려인 공헌 관련 문서 •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교육 · 문화 · 예술 관련 문서 등
국립영상기록 보존소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착 · 생활사 관련 사진 · 영상 (다큐멘터리 · 극영화 등) · 음성
국립과학기술의료기록 보존소	• 한국(인) 관련 과학기술 · 의료 등 기록물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재외동포사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벡 국가기록청 소장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기록물 540권 수집('06~'07)

참고 2 한–우즈벡 업무협정문 (국문)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청간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청은(이하 “양측” 이라 한다),

양측이 역사 및 문화적 유산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통적 우애 및 상호 유익한 협력 개발을 위해 양측의 기록물 연구 및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록관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측은 국가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호혜평등에 기초해 기록관리분야에서 협력을 조장한다.

제 2 조

양측은 상호 관심사항인 기록문서 출판뿐만 아니라 기록, 고고학, 문서화와 관련된 기록 분야의 법률 행위, 정보 및 문서를 상호 교환한다.

제 3 조

양측은 기록관리분야 전문가를 상호 교류한다. 주최측은 숙박비를 부담하며 상대측은 항공비 및 기타 경비를 부담한다. 양측은 전문가 상호 교류 시작 전 3개월까지 기간, 조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4 조

양측은 양국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유산을 연구하는데 있어 양국의 연구원을 지원한다. 양측은 기록물, 탐색보조도구, 참고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제 5 조

양측은 양국 국민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 수집을 위해 기록물 확인 및 기록물 사본 제공에 협력한다.

제 6 조

양측은 합의한 주제에 관해 기록문서 출판, 문서 전시회, 상호 과학적–이론적 및 과학적–실질적인 총회/심포지엄/세미나/전문가 연수/기타 업무회의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 7 조

양측은 양국 국민 및 기관들의 사회적-법적 요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양국의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록물을 상호 이용하는데 협력한다.

제 8 조

양측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서면 동의 없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 또한 불가하다.

제 9 조

양측은 양측에 의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가 아니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경비는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본 양해각서는 별도의 보충적인 협약을 통해 양측의 서면 동의하에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하며, 이러한 보충적인 협약은 양해각서에 포함된다.

제 11 조

양측은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양측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논의 및 협상으로 이를 해결한다.

제 12 조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상대방이 양해각서를 종료하고자 하는 서면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진행되는 어떠한 프로젝트나 협력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양해각서는 2016년 8월 17일 타슈켄트에서 서명하였으며, 한국어, 우즈베크어, 영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을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청을 대표하여
이 상진	

한-모로코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보존·복원 컨설팅

나미선 학예연구관(yeomin05@korea.kr / 복원관리과)
조은혜 학예연구사(choeunhye@korea.kr / 복원관리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로코 국가기록원 보존 컨설팅 및 기록물 복원 실습
2. 모로코 Abou Bakr El Kadiri 문화재단 보존 · 복원 컨설팅

Ⅲ. 결론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해마다 우리 원의 기록물 복원 기술에 대한 전수 요청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아프리카 거점 국가와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모로코 국가기록원 기록물 보존 컨설팅 및 복원처리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 취약 국가의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문화 및 기술을 아프리카 지역에 전파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의 기록관리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모로코 국가기록원 보존·복원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6년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서울기록총회 개최와 2020년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설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기록관리 및 기록물 보존 · 복원 등 우리나라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 경험 등을 공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국가기록원 기록물 복원 연수 프로그램은 '21년 11월 주한 모로코대사의 국가기록원 방문과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을 통한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사료 복원 분야 전문가 파견 및 관련 기술 전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 출장 개요 〉

- 출장기간 : '22.4.16.(토)~4.23.(토), 6박 8일
- 방문기관 : 모로코 국가기록원, 모로코 Abou Bakr El Kadiri 문화재단
- 주요내용 : 모로코 국가기록원, 모로코 Abou Bakr El Kadiri 문화재단의 기록물 복원처리 계획 수립 및 기술 전수를 위한 실습 교육 등 컨설팅

2011년에 개원한 모로코 국가기록원은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을 포함한 전체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기관이지만 모로코 최초 기록관리법 제정('07년)을 주도했던 사료 분야의 권위자 Jamma Baida 원장을 비롯해 직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큰 곳이었다.

〈 모로코 국가기록원(Archives of Morocco) 개요 〉

- 위　치 : 모로코 라바트 ※'26년까지 확장(12,100평 규모) 이전 계획(복원작업장 설치 준비 중)
- 창립/규모 : 2011년 독립된 기구로 창립되어, 현재 52명의 직원 근무
- 기관장 : 잠마 바이다('11년~) ※현대사 권위자로, 모로코 최초 기록관리법 제정('07년) 주도

모로코는 방문 전부터 지원 가능한 불용 장비 및 복원 컨설팅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 또한, 미개척 · 신시장 전략 지역으로 모로코를 선정하여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 및 선진 기록관리 기술 전수 등을 위한 현지 상황 점검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모로코 국가기록원 보존 컨설팅 및 기록물 복원 실습

1) 모로코 국가기록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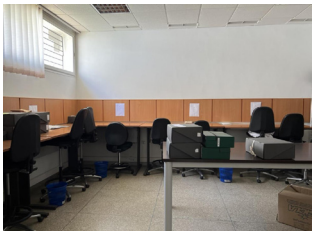
모로코 국가기록원은 1910년에 지어진 국립도서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6개의 서고에 약 1㎞ 분량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었고, 서고는 이관 기록물을 보존하는 임시서고 1개, 민간 기증 및 수집기록물 서고 1개, 본 서고 4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존서고에는 항온항습 등 공조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온·습도계를 설치해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가습기와 제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외벽이 두꺼워 온도가 잘 유지되는 건물과 아프리카의 건조한 날씨 덕분에 보존서고의 환경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임시서고(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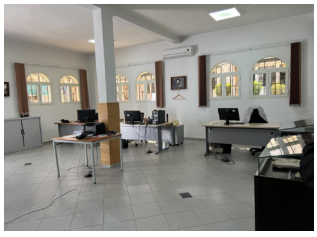
민간기증 및 수집 기록물 서고(1개)

본서고(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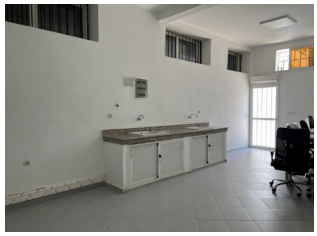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는 기록물을 이관받은 후 임시 서고에서 40일 보관 후 목록작업과 등록작업, 붓으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건식클리닝을 거쳐 상자편성을 한 후 서고에 배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복원처리 실습과 운영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공간은 있었으나 보존·복원 관련 시설 장비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건식클리닝 및 등록실



복원실 I



복원실II

모로코 국가기록원은 모로코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라바트 시내에 건설 중인 신시가지'테크노폴리스'에 신청사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12,000평 규모의 신청사에는 170개 서고와 보존처리실과 복원실을 갖출 계획이다.

2) 맞춤형 컨설팅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필요한 조치와 방법에 대해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컨설팅을 진행했다.

2-1) 이관 정책 강화 및 소장 기록물 분류

먼저, 모로코 국가기록원은 각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주기적인 이관 추진을 위한 조치 방안이 필요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관을 받은 사례는 전무 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전 서고의 수용량을 고려할 때 중요기록물 우선 이관 등 이관정책과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했다.

또한, 소장기록물에 대한 내용 분석과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존처리를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요기록물에 대한 선별(기증문서 중 왕실[1] 및 외교 관련 문서 등) 후 기록물 보존 · 복원처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2-2) 보존환경 조성 및 기록물 보존방안

모로코 국가기록원은 별도의 공조 시설은 없었지만 외벽이 두꺼워 외기의 영향을 덜 받는 건축물의 구조와 온습도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기후 등의 영향으로 보존환경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서고로 유입되는 해충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모로코 측에서도 우리나라 소독 장비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다. 당장 소독장비를 구입하거나 제작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해 IPM(Intergated pest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충 유입과 기록물 손상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록물 손상 유형 중 생물 피해 유형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 소독장비를 가장 최우선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1) 모로코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별도로 설치된 왕실기록원에서 왕실 문서 관리. 다만 기증기록물에 독립 이전 왕실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음.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리 · 등록 필요
– 정리된 기록물에 대한 상태검사 추진 필요
– 보존처리 우선순위는 소독→탈산→복원 순으로 진행하고, 중요기록물(기증기록물 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우선 추진
– 보존처리 대상,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필요
– 신청사의 서고 및 보존 · 복원처리실 구축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모로코 국가기록원 현황 소개

기록물 상태에 따른
보존 · 복원 방안 컨설팅

서고 보존환경 컨설팅

3) 훼손 기록물 복원처리 과정 실습

훼손 기록물 복원처리 과정 실습은 복원담당자 1명과 아키비스트 5명, 총 6명이 함께했다. 실습 과정은 이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일 차에는 기록물 상태검사와 복원처리서 작성 방법, 복원처리 도구 사용법, 그리고 클리닝과 복원 재료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2일 차에는 결실부 보강을 위주로 복원처리 전 과정 실습과 복원 후 처리서 작성 등 마무리 과정을 다루었다. 이틀간의 짧은 실습시간이었지만 참여했던 모로코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이론으로만 배웠던 복원처리를 실제로 해본 것이 처음이라 모두 열성적으로 참여했고 실습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주기적으로 연습하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훼손 기록물 복원처리 과정 실습 교육 프로그램

날짜	교육내용
4.19. (실습 1일차)	기록물 상태검사서 및 복원처리서(처리 전) 작성
	복원처리에 사용되는 소도구 사용법
	기록물 해제
	건식클리닝(부드러운 붓, 지우개 가루, 클리닝 스펀지 등)
	습식클리닝(수침법, 흡수지를 이용한 방법 등)
	접착제(소맥전분 풀) 제작
	복원용지 제작(한지에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색 방법 등)

날짜	교육내용
4.20. (실습 2일차)	결실부 복원(한지 및 소맥전분풀의 특성)
	수(手)탈산 처리
	재단 및 제본
	복원처리서(처리 후) 작성 및 마무리
	질의응답

결실부 보강 실습

접착제(소맥전분 풀) 제작

질의응답

2. 모로코 Abou Bakr El Kadiri 문화재단 보존 · 복원 컨설팅

1) 모로코 Abou Bakr El Kadiri 문화재단 현황

모로코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Abou Bakr El Kadiri 문화재단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Abou Bakr El Kadiri 문화재단은 Abou Bakr El Kadiri Abou Bakr[2]이 1930년부터 모코코 독립운동 과정에 대해 집대성한 회고록과 투옥 중 편지, 시청각 기록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다. 기록물 관리는 이사장 등 Kadiri의 세 아들이 하고 있었고 현재는 기록물 분류작업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아직 정확한 소장량(약 7,000㎡정도로 예측하였음)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고는 일반 건물로 지어진 재단 사무실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었고 큰 창문들을 통해 유입되는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기록물이 빠르게 산화되고 있었다. 온습도 등 공조를 통한 보존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였다.

다만 중요기록물과 Kadiri의 저서 일부를 디지털화한 상태로 빠른 시일내에 기록물을 정리해서 향후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2) El Kadiri(1913.4.~2012.3.) 모로코의 학자, 작가, 정치인으로 모로코 민족운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며 1934년 모로코 개혁 계획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2) 보존 · 복원 방안 컨설팅

기록물 보존과 분류, 디지털화 등 모든 작업을 3명의 인원으로 수행하는 상황에서 인적, 물적 한계가 있어 사실 대안 제시에 어려움이 많았다.

첫째, 보존환경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선 창문에서 유입되는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온습도계를 설치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정리, 분류된 기록물들은 보존용 중성 상자에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용품 구입 경로와 적당한 규격 및 사양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보존서고 현황

기록물 상태에 따른 보존 · 복원 방안 컨설팅

Ⅲ. 결론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 방문 당시 라마단 기간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이번 출장을 시작으로 '21년 11월에는 모로코 국가기록원 보존 · 복원 업무 담당자 2명이 우리 원을 방문하여 복원처리 연수를 추가로 받고 돌아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로코를 거점으로 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문화 및 기술을 전파하고, 나아가 계속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국가 간 우호 증진과 국제 복원전문가들과의 교류 ·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해마다 우리 원의 기록물 복원 기술 전수와 연수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연구센터와 4개 국립박물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복원처리 기술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기록관리 취약 국가의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2 ICA 연례회의 참가 및 활동

이정연 학예연구사(pale201@korea.kr / 기록협력과)

목 차

Ⅰ. 개요

Ⅱ. 참여활동

1. 주요 회의 참석
2. 국가기록원 ICA 연례회의 학술 발표
3. ICA 연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
4. 이탈리아 국립중앙기록보존소 (Archivio Centrale dello Stato, 이하 'ACS') 방문

Ⅲ. 시사점 및 향후과제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2022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2022 ICA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국제 기록공동체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Ⅰ. 개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2022년 9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아카이브 : 격차 해소(Archives : Bridging the Gap)'라는 주제로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세계기록관리협의회)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ICA는 1948년 6월 8일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되어 현재 199개국 약 1,900여 기관과 개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집행이사회(Executive Booard), 13개 지역지부, 13개 전문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ICA는 4년마다 총회를 개최[1]하며, 총회 없는 해에는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ICA는 세계 각국의 기록관리기구 및 기록전문가의 상호교류 강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ICA는 특히 연례회의를 통해 세계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정보교환과 기록물의 국제적 보존 · 보호 · 활용을 제고하고, 각종 연구 프로그램 추진 및 세미나 개최로 세계기록관리의 수준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1979년 7월 ICA에 국가회원급으로 가입하여, 동아시아지역지부(EASTICA) 창립회원 및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1981년 이래 ICA 회의에 참석해 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ICA 집행이사회[2]와 2016년 ICA 총회를 개최[3]했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총회(Annual General Assembly, AGA) 및 국가기록원 포럼(Forum des Archives Nationaux, FAN) 참석, 학술 발표, 국가별 기록관리 이슈 및 동향 파악 등을 목적으로 ICA 연례회의에 참여하였다.

1) 2020년 아랍 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3년 10월 9일~13일 연기·개최.

2) 2010년 5월 30일~2010년 6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3) 2016년 9월 5일~2016년 9월 10일 '기록, 조화와 우애'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114개국 2,059명의 기록관리 전문가가 참석하여 59개국 256편의 학술발표가 진행됨.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개발,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 및 인력양성 등 세계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서울선언이 발표됨.

Ⅱ. 참여 활동

1. 주요 회의 참석

1) 2022 연례회의 총회(Annual General Assembly)

2022년 9월 21일(수)에 개최된 총회는 정족수 확인, 안건 채택, 회의록을 승인하면서 개회되었다. ICA 의장인 David Fricker의 2021년 활동 보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프로그램 주요 사업 및 성과보고, 2021년 전략 및 사무국의 중점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D. Fricker 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신임 의장으로 Josée Kirps 룩셈부르크 국가기록원장이 선출되었으며, Meg Philips 미국 NARA 대외협력담당이 부의장(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다.

2022 ICA 연례회의 총회(AGA)

국가기록원 포럼(FAN)에서는 먼저 각국 기록원의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 for national archivist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칠레 기록원은 현대화 프로젝트에 이은 전자기록물의 이관과정을 발표하면서 국가기록원의 기능 강화, 기록관리 정책 및 프로세스의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스웨덴 국가기록원은 북유럽 원주민(사미인)[4] 아카이브 활동을 발표하였는데, 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 국가기록원이 사미인 기록연합실무단을 구성하여 사미인 아카이브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미인 관련 기록물 수집과 사미인 공동체와의 협력 등 관련 국가들의 사미인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카메룬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전문가 역량

4) 사미인(Sami)은 스칸디나비아 북부와 핀란드 북부, 러시아 연방령 콜라 반도에 걸쳐서 거주하는 우랄계 민족으로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해옴. 핀란드를 비롯한 국가에서 정치적 민족 자치권을 보호받고 있으나, 문화 및 정체성이 사라져 가고 있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강화의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에서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재교육을 통해 ICT 관련한 새로운 기록관리 최신동향을 익히고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FAN에서 두 번째로 논의한 것은 비엔나 협약으로의 회귀에 관한 것이었다.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 · 국가기록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관련한 것으로 식민지 시대에 분산된 기록의 복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기록원은 식민시대 반출된 기록물 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협약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기록원은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반출된 기록물의 복제본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영국이 소장한 일부 기록은 회수하였지만 대부분 구매를 통해서 기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식민지 반환 및 독립 시기의 국가기록물은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였다. 프랑스-베냉의 유물 반환사례[5]는 국가 수장 간의 외교 및 프랑스 의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별 문화유산과 관련한 현행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유물 등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현재 적용되고 있고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을 기록물에 적용하게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 국립도서기록청(LAC)은 기록물 반환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탈식민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인 것을 고려한 점진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2. 국가기록원 ICA 연례회의 학술 발표

국가기록원은 세션 및 포스터로 학술 발표에 참여하였다. 먼저 '공동체 및 가족 아카이브 연결하기'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의 격차 해소'라는 제목으로 한국 공동체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국가기록원의 민간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것을 발표하였다.[6]

5)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프랑스가 약탈했던 주요 문화유산 26점이 130년 만에 반환됨(2021.11.1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트리스 탈롱 베냉 대통령은 문화재 반환 협약서에 서명(2021.11.9.)함으로써 토템 조각상, 왕좌 등 문화유산 26점이 13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됨.

6) 2022년 9월 23일(금) 이정연 학예연구사 발표.

ICA 연례회의 세션 발표(국가기록원)

한국에서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아카이빙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날 한국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 및 도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국가기록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향후 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마쳤다.

포스터 발표[7]로는 한국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소개했다. 일부 국가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사례가 있지만, 한국이 구체적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 ·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ICA 연례회의 포스터 발표(국가기록원)

포스터 발표는 한국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특징을 4가지[8]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ICT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투명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기록관리 목적에 복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전망하였다.

7) 2022년 9월 22일(목) 한능우 디지털혁신과장 발표.

8) 1. 시스템을 기록관리의 기본단위로 하고, 기관의 자체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2. 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협의하여 "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한다. 3. 영구보존이 필요한 데이터세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사전에 선별하고 이관은 데이터를 추출하여 진행한다. 4. 위와 같은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한다.

3. ICA 연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

ICA 연례회의 학술 발표는 'Archives bridging the democracy gap, Archives bridging the distance, Archives bridging the cultural gap, Archives bridging the digital gap'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세션별로 3일간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록관리와 관련한 최신 기술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연결형 데이터(RiC) 표준으로의 전환 및 RDF 기반의 트리플 구조 데이터와 기록 객체 간의 상호 연결성이 소개 · 논의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록관리를 위한 디지털화, 서비스 설계, 규제 샌드박스 등의 다양한 접근법과 함께 이메일 ·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관리 방안도 이야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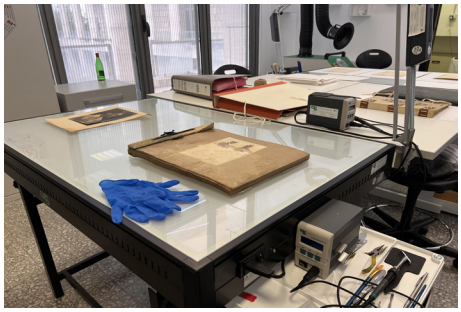
코로나 19 펜데믹은 아카이브에도 영향을 주었다. 펜데믹 기간 중 아카이브에서의 기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카이브 업무 영역을 온라인으로 재설계하거나 전환하여 아카이브 또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특히 소셜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관점에서의 새로운 기술 실무 및 활동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아카이브는 공공 기록관리뿐만 아니라 소외된 공동체와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논의되었다. 미국 NARA는 편견과 인종차별적 시선 등을 포함한 기술(description)을 개선하고, 소외된 공동체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의 기록학 연구자들은 난민 및 디아스포라 관련 아카이빙 활동을 통한 난민 이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 아카이브는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기록화되지 않은 공동체 정보 기록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존 ·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록물의 장기 보존 및 접근성을 위한 학계 · 아카이브 · 도서관 등의 협력을 통한 유산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시대의 기록관리의 격차 해결을 위하여 사회정의 및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공동체 유산의 기록화와 기록을 탐색하는 활동을 위해 공동체 아카이브와 지방자치단체 아카이브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4. 이탈리아 국립중앙기록보존소(Archivio Centrale dello Stato, 이하 'ACS') 방문

이탈리아 국립중앙기록보존소는 1875년 설립된 Royal Archives가 전신으로 이탈리아 주요 국가기록보존소이다. ACS는 2008년 학술 · 재정 · 조직 · 회계 자치권을 가진 문화유산부 산하 특별자치기관이 되었으며, 총 110km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ACS의 소장기록물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로, 국가 주요 공공기관에서 이관받은 문서와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문서이다. ACS가 소장한 기록물은 역사 연구에 중요한 기록물로, 약 50여 개 공공 및 민간기관의 기록과 약 250명의 정치인(정당기록 포함) · 문화인 특히 건축가의 개인기록물이다.



(좌) 보존처리 과정 (우) 기록 열람서비스실

ACS는 영구기록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콜렉션 · 주제별로 수집하거나 이관받아 색인 · 디지털화 · 보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 또는 일반이용자가 색인을 확인하고 기록물 열람을 요청하면, 디지털 또는 종이기록물 사본을 열람 ·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형태로 열람실을 운영 중이다.

Ⅲ.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022 ICA 연례회의의 주요 회의 및 학술 발표를 통해 국가별 현안 및 기록관리 성숙도에 따라 전략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낮은 수준의 기록관리에서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및 연결형 데이터를 고려하는 높은 수준에서의 기록관리까지의 국제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은 세션 발표와 포스터에서 모두 고루 다루어질 정도로 주목받는 주제였다. 구조적 데이터인 ISAD(G)에서 연결형 데이터(RiC-O)로의 전환에 대한 제안, 기록 생산체계의 검토 및 기록물 속성을 반영한 AI 기술 적용 등 기록관리 체계에 걸친

다방면의 전략의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비용 · 리스크 감소 및 경험 축적을 위한 적극적인 혁신 노력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공유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기록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활성화는 것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민 · 이주민 등 소외된 집단에서의 기록 생산을 장려하며 기록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등의 접근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 활동가 · 공동체 · 지역 · 국가 아카이브가 협력하여 상호 연결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등의 네트워크 자원을 통하여 상호 접근성을 강화할 것 등이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현안 및 특성에 따른 고유의 기록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정책적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기의 기록관리를 제시하고, 공공 · 민간협력을 통한 민간 기록관리 활성화 및 기록과 아카이브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 주최 -
제1회 기록관리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주제발표

조이현 학예연구관(joyih@korea.kr / 기록협력과)
신동혁 공업연구사(hyeokk@korea.kr / 복원관리과)

목 차

Ⅰ. 출장개요
Ⅱ.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및 기록보존소 견학
1.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2. 박물관 및 중앙기록보존소 등 방문
Ⅲ. 결론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국교 수립 3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가 주최한 제1회 기록관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국가·공공표준의 운영현황을 발표하고 양국 간의 기록관리 분야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출장결과와 소감을 정리한 것임

Ⅰ. 출장개요

2016년 10월 국가기록원은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이하'카자흐 보존소'로 약칭)와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7년 4월 벨라루스 전자정부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전자기록관리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고, 2018~2019년 국가기록원의 국제기록관리 연수과정에 카자흐 보존소 직원 11명이 참석하여 기록관리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1년 8월 Kasym-Zh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간 기록관리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이러한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카자흐 보존소는 2022년 10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1회 기록관리 국제학술대회에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표준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출장기간

2022.10.18.(화) ~ 10.22.(토) / 3박 5일

2) 출 장 자

조이현 학예연구관(기록협력과장), 신동혁 공업연구사(복원관리과)

3) 주요 출장내용

○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국가 · 공공표준의 운영현황 주제 발표

○ 한–카자흐 보존소 간 기록관리 분야 교류협정(MOU) 재체결 등 협력방안 협의

– 기록물 디지털화 및 보존 · 복원 관련 카자흐 보존소 직원의 한국 연수

– 카자흐스탄 소재 한인 포로 관련 기록물의 수집 등

○ 주요 일정

날 짜	세부 내용
10.19.(수)	• 카자흐 보존소 주관 국제학술대회(1일차) – 개회식 참석 및 축사, CIS 지역 기록전문가와의 교류
10.20.(목)	• 카자흐 보존소 주관 국제학술대회(2일차) – 국가기록원 주제 발표 • 한–카자흐 보존소 간 협력방안 협의 – 디지털화 및 보존 · 복원 연수 / 한인 포로 관련 기록물 수집
10.21.(금)	• 카자흐 보존소 주관 국제학술대회(3일차) – 회의 선언문 채택, 중앙기록보존소 방문

Ⅱ.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및 기록보존소 견학

1.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카자흐 보존소가 주최한 제1회 기록관리 국제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열린 아카이브에서 열린 사회로”(Open Archive to Open Society)였다. 10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 발표, 10월 21일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총 3일간 개최되었으며, UN, UNESCO, ICA 등 국제기구와 아르메니아, 요르단, 이란, 캐나다, 카자흐스탄, 중국, 한국, 폴란드, 러시아, 미국, 쿠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등 15개국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학술회의였다.

10월 19일 오전 알마티 시내 ‘우정의 공회당(Republican House of Friendship)’에서 Aliya MUSTAFINA 카자흐 보존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카자흐스탄 전통 공연, 문화체육부 장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총장 등의 축사, Luciana DURANTI 캐나다 UBC 교수의 영상 축사 등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장을 대리해 참석한 기록협력과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교류협력을 토대로 앞으로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막식 장면

DURANTI 교수의 영상 축사

개막식에 이어 오후까지 의미 있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기록의 지식정보화 : 21세기의 도전들”(Kairat ALIMGAZINOV, 카자흐 보존소 부소장)

“NARA의 기록 공개와 투명성 제고”(Chris NAYLOR, 미국 NARA 연구서비스 국장)

“기록들 : 일급비밀에서 온라인으로(국가정보기관의 기록)”(Marzena KRUK, 폴란드 국립기록보존소장)

10월 20일 카자흐 보존소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주제 발표가 계속되었다. Carlos Serrano VASQUEZ(ICA 국장)의 "ICA의 활동과 현 단계 기록관리 발전의 이슈들"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신동혁 공업연구사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국가 · 공공표준 운영현황"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표준 정책은 공공기록물법령에 표준화의 원칙과 제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표준은 14개로, 이 중 국가기록원이 주도한 것은 7개라 하였다. 미래의 표준화 5대 전략으로 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표준, ②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 ③ 기록관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내용 및 활용 장려, ④ 전문성을 갖춘 표준, ⑤ 국제 표준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시하였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록관리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록관리 표준 관련 〉

① 공공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관은?
⇒ 모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함

② 한국의 기록관리 표준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은?
⇒ 한국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③ 한국의 기록물 디지털화 현황 및 방법은?(자체 또는 위탁 여부)
⇒ 소장기록물의 약 30%이며, 국가기록원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

④ 디지털화의 절차 및 그 절차가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 절차는 '상태검사→디지털 작업→디지털파일 관리' 순이며, 상태검사 결과에 따라 보존처리 하며, 기록매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화 장비를 사용 중임
⇒ 디지털화 절차 · 결과물에 대한 규격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음

⑤ 이러한 표준을 잘 이행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한국의 전문인력 양성 방법은?
⇒ 20여 개 대학원에서 기록관리 전문가를 교육 · 양성하고 있음

〈 기록관리 일반사항 〉

① 한국은 오래된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하고 있나?
⇒ 매년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원 및 분관(나라 · 부산 · 행정기록관)에 상설전시관을 운영 중임

② 디지털 기록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함께 사용하는지?

⇒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만 사용하고 있음

③ 디지털화 표준에 전자서명포맷을 포함하고 있는지?

⇒ 표준에는 전자서명의 필요여부와 규격을 기술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기술규격은 별도의 표준이 있음

주제 발표 장면(신동혁 연구사)

질의/답변 장면

오전의 주제 발표 이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Aliya MUSTFINA 카자흐 보존소장과 양국 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카자흐 측은 ① 한국 국가기록원과의 MOU 재체결을 희망, ② 수도 ASTANA에 보존서고를 신축할 예정인 바, 디지털화 장비와 보존·복원 장비의 구입방법을 알려줄 것, ③ 한국의 국제 기록관리 연수에 카자흐 기록보존소 직원을 포함시켜 줄 것, ④ 카자흐스탄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MOU 재체결에 동의하며 수정문안을 보내주면 외교부 심의절차를 거쳐 재체결을 추진하겠으며, 디지털화 및 보존·복원 장비의 구입방법 및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도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국제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회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동의한 이 선언문은, 먼저 세계가 격동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카이브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기록/기억의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의 활동이 정부의 대내외 정책 실행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가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 수준의 기록학, 고고학, 기록 업무 영역에서 국제학교, 세미나, 콜로키움 등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대학을 지원하고 기록학 교육을 발전시키며, 시민의 정보 요청에 대해 적극 공개하는 개방적 정책을 실행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IT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ICA의 아키비스트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

2. 박물관 및 중앙기록보존소 등 방문

10월 20일 오후 '카자흐스탄 정치억압 피해자 박물관'(Museum of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in Kazakhstan)[1]을 방문하였다. 박물관은 1916년의 카자흐스탄 민족해방운동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정치적인 억압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스탈린 시대 카자흐스탄 국민에 대한 고문, 피해를 생생하게 재현한 코너와 피해자 명단이 기재된 커다란 벽면이 인상적이었다. 피해자 명단 중에는 1937년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박물관 측의 설명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피해자 추모 조형물

피해자 이름이 새겨진 벽면

10월 21일 오전의 학술회의를 마치고, 중앙기록보존소 측의 권유로 알마티 시내에 있는 보존소를 방문하였다. 넓은 열람실을 거쳐 강당으로 안내되었는데, 20세기 중반 고려인들의 예술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당하여 살아간 고려인들이 한국문화를 이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공연, 연극 관련 포스터들이었다. 힘겨운 삶을 지속했던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을 국가기록원이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련 연구에 활용되면 좋겠다는

1) Almaty에서 40km 떨어진 Talgar district, Zhanalyk village에 위치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한 Shymbulak은 톈산산맥의 자락에 있으며, 해발 4,000m로 세계적인 스키 명소로 알려져 있다. 알마티에서 침볼락으로 가는 풍광도 아름다웠지만, 흰 눈이 쌓인 침볼락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고려인 공연 · 연극 포스터

침볼락 전경

Ⅲ. 결론

카자흐 보존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으로 느껴진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아키비스트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록관리, 전쟁 · 재난 · 재해 등으로 인한 기록유산의 훼손, 파괴,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록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위해서는 기록관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학술회의에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적 자극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해외의 국가 아카이브에 아직 수집하지 못 한 한국 관련 기록이 적지 않게 있으며, 국가기록원이 적극 나서서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이후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광범위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기록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분발이 필요할 것이다.

기록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해외동향 및 향후 과제

이상화 전문임기제 라급 (goocoo133@korea.kr / 복원관리과)
이영락 공업연구사 (samstown@korea.kr / 복원관리과)
박성배 공업연구관 (canfafa05@korea.kr / 정책기획과)

목 차

Ⅰ. UNESCO 3rd Memory of the World Global Policy Forum
1. 각국의 국제협력 강화 프로젝트 사례
2.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례

Ⅱ. 일본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화 및 보존 · 복원 현황
1. 국립공문서관(National Archives Of Japan)
2.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Japan)

Ⅲ. 향후 과제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2022년 일본에서 개최한 UNESCO 제3회 '세계의 기억' 글로벌 정책 포럼은 '위험에 처한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증가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개발, 보존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강화 프로젝트 등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일본 기록관리기관인 국립공문서관(National Archives Of Japan)과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Japan)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화 및 보존·복원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Ⅰ. UNESCO 3rd Memory of the World Global Policy Forum(2022년)

1992년에 설립된 UNESCO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 MOW)' 사업은 세계기록유산 보존 촉진과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1회(2018년), 제2회(2021년) '세계의 기억' 글로벌 정책 포럼에서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재해를 막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3회 '세계의 기억' 글로벌 정책 포럼은 MOW 사업 설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하였다.

- (주　　제) 위험에 처한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일정/장소) 2022.11.21.(월)~11.22.(화)/ 도쿄(국립공문서관, Keio Plaza호텔)
- (내　　용) 증가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역량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참 가 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5개국
- (주　　최) UNESCO & 일본 문부과학성

개회 축사

각국의 현황 공유

기록유산 보호 사례

제3차 '세계의 기억' 글로벌 정책 포럼은 '위험에 처한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5개국이 참가하였다. 증가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사례를 공유하였다.

1. 각국의 국제협력 강화 프로젝트 사례

벨기에는 2021년 7월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계기로 왕립문화재연구소(KIK-IRPA)에서 문화재 복구를 위한 '위기의 문화유산' 프로젝트(2022~2024)를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벨기에 기록유산의 보존,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대학 및 국제 파트너(UNESCO, ICCROM)와 협력하여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위기 상황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구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프로젝트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말리는 아프리카의 중부에 위치한 Timbuktu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2년 무장단체에 의해 많은 기록유산이 훼손되었으며 분쟁의 여파로 복구의 기회마저 차단되어있는 이 지역의 사례는 기록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연대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3년 2월 Timbuktu 지원계획 채택 후 2014년 6월 베를린 회의를 통해 고문서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록유산 보존장소 선택, 위기 발생 대비를 위한 보안시스템, 보존환경 제어 방법 및 디지털화 등 보존 기술을 보급하여 기록유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도서관협회(IFLA)는 전 세계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협업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상호협력과 공동역량 구축에는 문화재 보호, 재난 대응 및 복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자연적 · 인위적 재해와 같은 위협요인으로부터 기록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협력 연대를 강조하였다.

2.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례

일본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역사, 전통 보존지역의 기록유산을 지키기 위한 'Siryou Net'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재난 등으로 기록유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재건을 지원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기록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해독이 어려운 초서체(kuzushiji)를 학습시켜 현재의 문자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모바일용 AI OCR 'Miwo App'을 개발하여 과거 기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경우 도심 지역 중심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어 수도나 중심 도시에 위치한 기록보존소는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 외 지역 기록유산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비가 부족하여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보존을 위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저장소를 중심지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Ⅱ. 일본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화 및 보존 · 복원 현황

일본의 대표 기록관리 기관인 국립공문서관(National Archives Of Japan)과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Japan) 방문 후 양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화 정책 및 보존 · 복원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국립공문서관(National Archives Of Japan)[1)]

일본의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문서 보존을 위해 1971년에 개관한 국립공문서관은 1998년에 쓰쿠바(Tsukuba) 분관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내각문서 50여만권을 포함하여 약 160만 권의 공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일본공문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과 비교하여 시설 ¼, 인력 ⅕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신관 건축을 2017년 말에 승인받아 2028년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목록화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소장 아날로그기록물의 약 20%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공공안전 등 비공개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록물의 보존은 일반서고와 주요서고(헌법 및 중요문서)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일반서고는 온도 22℃, 습도 55%, 주요서고는 온도 20℃, 습도 50%로 적정 온 ·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고는 빛에 의한 열화 방지를 위하여 자외선 차단 LED등과 전등 센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종이기록물은 손상 정도에 따라 결실부 보강, 배접, 리프캐스팅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복원한다.

디지털화 작업

기록물 복원

전시관

1)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홈페이지 이미지를 인용함(https://www.archives.go.jp)

2.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Japan)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 소속기관으로 1948년 일본 국회의원의 공공정책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회의 활동 지원과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보존, 외부 기관과의 협력, 국가 디지털 정보 인프라 확장 등의 역할과 일본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 수요도 높다.

본관과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국회도서관은 본관은 17개의 서고를 갖춘 정사각형 형태로 총길이 172km, 450만 권의 도서 수용이 가능하다. 신관은 본관과 연결된 지하 8층 ~ 지상 4층 규모로 총길이 240km, 750만 권의 도서 수용이 가능하다. 소장기록물은 도서 120만 권, 잡지 130만 권, 신문 670만 권 이외에도 MF 900만, 비디오 40만, 오디오 80만, CD · DVD 17만, 문서 42만 권 등 총 4,600여만 권을 소장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화는 소장량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유형, 생산연대, 주제 등 광범위한 단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서고관리팀, 자료관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각 팀에서는 유일성, 희소성, 이용 가능성, 훼손 상태 및 사회적 · 학술적 요구, 디지털 컬렉션 구축 가능 자료 등을 검토하며, MF 촬영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선정한다.

디지털화 파일은 TIFF(보존용)로 생성한 후 JPEG2000(열람용)으로 변환하며, TIFF 파일은 개방 선형 테이프(Linear tape-Open : LTO)에 저장하여 서고에 보관한다. 보존용은 무손실, 열람용은 손실 방식이다. 파일 용량은 총 200~300TB이며 컷 당 용량은 0.5~1MB이다. 디지털화 품질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 품질이 낮더라도 많은 양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2)]

디지털화는 자체처리와 외주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는 연간 50만 컷, 외주는 연간 5,000만 컷으로 진행한다. 최근 5년간 디지털화 관련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의 방안으로 예산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액 외주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연도		2018	2019	2020	22021	2022
예산 (억원)	당초	22	23	23	27	27
	수정	–	–	450	380	–

2) 국가기록원은 문서류의 경우 공공표준인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에 따라 보존용의 파일포맷은 TIFF(LZW), 활용본의 파일포맷은 JPEG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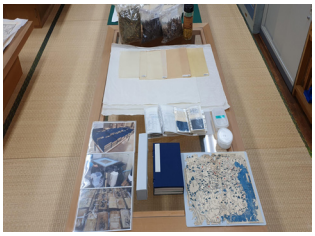
외주사업은 기록물을 반출하여 외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데 가치가 낮은 자료를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작업장 환경조건, 보안상태 및 추진 결과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훼손 · 분실 등에 대비한 별도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2021년도 시범운영의 경우 약 30만 권을 반출하였는데 10권 정도에서 일부 훼손이 확인되었지만 심각한 훼손은 아닌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3] 본 사업의 검수는 대상량의 5%를 실시하며 오류율이 0.5% 이하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디지털화 파일의 광학문자인식(OCR) 등 신기술 적용 여부 문의 결과, 검색과 활용을 위하여 OCR을 적용하고 있었다. 인쇄체 도서류의 경우 인식률 95% 수준으로 정확한 위치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4] 대략적인 확인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수기체의 경우 인식률이 매우 낮은 수준 정도라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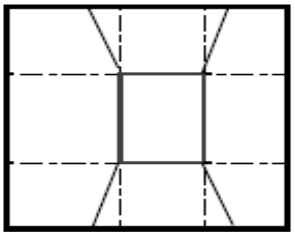
점차 사양화 단계에 있는 마이크로필름(MF)의 경우, 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상만 촬영하고 있었으며, 이미 촬영이 완료된 MF의 경우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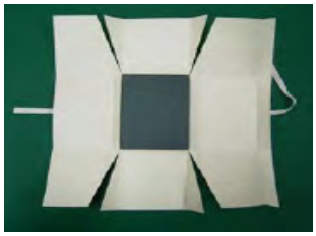
도서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원본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수집 자료[5]를 원본으로 판단하여 영구보존 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 보존하기 위하여 복원 · 복제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원처리 대상은 중요 소장자료와 대여 중 훼손된 자료이며 활용과 보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 중이다. 복원처리는 대부분 디지털화 이전 단계에 진행하며 외부에 대여가 가능할 정도로 복원하고 있다. 또한 보존 폴더 개선을 위하여 개선 방법을 개발하고 홈페이지에 제작 방법을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복제본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는 주로 원본 기록물을 대체하기 위한 전시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신문을 축소하여 양장본으로 만들어 대여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한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3) 도서류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기록물일 경우 작은 훼손도 수용하기 어려움
4) 하이라이트 기능이 정확하지는 못함을 의미함
5) 수집 자료 중에서도 유일본인 경우도 있음



복원처리 사용 재료





개발된 보존 폴더 도면 및 이미지

Ⅲ. 향후 과제

세계기록유산 글로벌 정책 포럼을 참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정치적인 여건, 경제적인 상황, 지리적 위치 등과 상관없이 기록유산을 보호하고 복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고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기록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보존·복원 체계를 조성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존·복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그간 국가 간 공조가 어려웠다. 이제 전 세계는 각국의 기록유산을 보호하고 파괴되었던 기록유산을 복원하기 위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본의 기록물 보존을 대표하는 국립공문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양 기관에서 원본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열람, 전시 등에 원본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화를 적극 확대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원하는 기록정보를 확인하는 시대가 도해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가기록원도 아날로그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록정보를 적극 축적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팬데믹 시기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연간 약 400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같은 유관기관도 대규모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침 국가기록원은 중요기록물의 우선적 처리를 위하여 2022년도에 디지털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정책,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사고와 같은 가치 있는 기록물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보존 · 복원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기록물의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각급기관의 기록물 보존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키트와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복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기록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영국, 라오스에서 요청한 기록유산 복원을 지원하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 기록물의 디지털화 보존 분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록유산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점차 확대하여 우리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역량을 널리 전파하여야 한다. 기록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보존 · 복원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면 더욱더 많은 기록유산을 후대로 전승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발간호	제 목	작성자	발간일
vol. 1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황정원 기록연구사	2019. 10. 8.
vol. 2	『공공기록물법』 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①기록의 개념과 성립요건 - 정보와 증거로서의 기록의 함의를 기록물법에 적용하기 -	이젬마 서기관	2019. 10. 22.
	②기록이란 무엇인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신영 기록연구사	
vol. 3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방안	윤정훈 행정사무관	2019. 10. 31.
vol. 4	"도전! 기록관리 명강사되기"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도입	김명옥 사서사무관	2019. 11. 15.
vol. 5	국가기록원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의미와 전망	왕호성 기록연구사	2019. 11. 22.
vol. 6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의 방향	이지영 공업연구사	2019. 12. 5.
vol. 7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김현숙 공업연구사	2019. 12. 12.
vol. 8	건축아카이브의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 ICAA BRAGA 2019 참관기 -	김수연 전문임기제 허인영 전문임기제	2019. 12. 13.
vol. 9	전자기록 장기보존패키지 모델 시험과 새로운 모델 제안	신동혁 공업연구사 김상국 전산사무관 나미선 학예연구관	2019. 12. 17.
vol. 10	기록물 매체수록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박지혜 공업연구관	2019. 12. 24.
vol. 11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2018년 생산분)	김현애 기록연구사	2020. 1. 15.
vol. 12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하정하 기록연구관	2020. 1. 29.
vol. 1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 현황과 전망 -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성주영 기록연구사	2020. 2. 12.
vol. 14	정기실태점검을 통해서 본 기록관리 개선방안	박지태 학예연구관 송혜현 사서사무관	2020. 2. 27.
vol. 15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임신영 기록연구사	2020. 3. 11.
vol. 16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관련 사례 및 시사점	조영주 사서주사	2020. 3. 20.
vol. 17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박이준 학예연구관 이주현 기록연구사	2020. 4. 3.
vol. 18	기록관리 현장 지원을 위한 기관방문 컨설팅의 추진	나창호 기록연구관 정경택 공업연구사	2020. 4. 21.
vol. 19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 - OCR 적용 사례 및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	박지혜 공업연구관	2020. 5. 13.
vol. 20	이용 통계로 알아보는 국가기록포털의 현재	서경란 전산주사보	2020. 5. 27.
vol.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권미현 기록연구사	2020. 6. 17.
vol. 22	손상파일 유형과 복구사례로 본 전자기록의 이해	김자경 기록연구관	2020. 7. 21.
vol. 2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 데이터세트 형태의 전자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실행 방안 -	이주광 공업연구관	2020. 9. 11.
vol. 24	특수지의 특성과 기록보존	허인영 전문임기제	2020. 10. 23.
vol. 25	기록물 상태검사 개선방향과 데이터 활용 사례	박지혜 공업연구관 이상화 한시임기제	2020. 11. 20.
vol. 26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개선방안	최현욱 학예연구사	2020. 12. 18.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발간호	제 목	작성자	발간일
vol. 27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절차 수립 및 적용 사례 기록관리시스템 컨설팅 현황	황정원 기록연구사 이창영 공업연구관	2021. 2. 26.
vol. 28	대통령기록관 소장 미술품의 이해와 활용 영구기록물 분류체계 추진현황	김정은 학예연구관 김현진 기록연구사	2021. 3. 31.
vol. 29	공공기록물법령 질의답변 사례 – 전자기록물 관련을 중심으로 – 독립만세운동 기록물 복원·복제 지원사례	김명옥 사서사무관 양소은 학예연구관, 조은혜 학예연구사	2021. 4. 30.
vol. 30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지원업무와 개선방향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문찬일 기록연구사 임신영 기록연구관, 이혜원 기록연구사	2021. 7. 2.
vol. 31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OCR) 기술 적용 및 활용방안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사본의 원본인정을 위한 기준, 절차 및 관리방안 제안	홍정기 보건연구사 백승옥 사서사무관 김상국 전산사무관	2021. 9. 30.
vol. 3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동향 도입하고 싶은 해외기관의 기록물 보존정책	김지훈 사서주사, 최찬호 공업연구관 안규진 학예연구사, 이재영 인턴연구원	2021. 11. 30.
vol. 33	민간아카이브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의 방향성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기획	이정연 학예연구사 김주연 학예연구관	2022. 3. 31.
vol. 34	국제사회에서 아카이브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 실효성 있는 기록관리 표준을 위한 단계적 정비 방안	임신영 기록연구관, 박민예 행정주사보 김명옥 서기관, 송헌규 기록연구사	2022. 6. 30.
vol. 35	행정박물 선별·관리체계 개선방안 국가기록원 클라우드 전환 현황과 과제	박부숙 사서사무관, 박지영 사서주사보 왕호성 기록연구사	2022. 9. 30.
vol. 36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과정에서의 기록관리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해외 동향 및 국내 현황과 과제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이관방식 변천 및 평가	권미현 기록연구사 이정연 학예연구사 윤정훈 행정사무관	2022.12. 15.
vol. 37	국내외 기록관리 최신 동향 - 2022년 연구개발사업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김용일 공업연구사 이정연 학예연구사	2023. 4. 28.
vol. 38	2022년 국가기록원 국외업무출장 관련 해외 기록관리 사례	이젬마 서기관, 나미선 학예연구관 조은혜 학예연구사, 이정연 학예연구사 조이현 학예연구관,신동혁 공업연구사 이상화 전문임기제 라급 이영락 공업연구사, 박성배 공업연구관	2023. 6. 30.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현장의 다양한 현안 논의와 기록인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성과 공유를 기다립니다. 기고를 원하시거나, 본지의 발간과 관련한 일체의 질의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혹은 이슈페이퍼 내용에 대한 질의 등 필자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뒷면의 문의처나 필자의 메일을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 38
ISSUE PAPER

이슈페이퍼 더보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발행처 :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발행인 : 국가기록원장
발행일 : 2023. 6. 30.
인쇄처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E-WORK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층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Tel 042-481-6311 **Fax** 042-481-6234 **E-mail** issuepaper@korea.kr